

EPS업계의 지속적 국제 교류 필수적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2013년도 아시아EPS생산자기구(AMEPS: ASIAN MANUFACTURES OF EPS) 총회가 개최 된다. 이와 관련하여 AMEPS를 소개하고 AMEPS 활동을 중심으로 협회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1. 아시아EPS생산자기구(AMEPS)

설립 및 회원

아시아EPS생산자기구는 1995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설립되었다.

회원은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의 EPS재활용 기구이다.

2013년 8월 현재 12개 회원으로 구성 된 아시아 EPS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설립 목적은

- EPS의 재활용 촉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제 구축
- EPS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보급과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 미주, 유럽의 EPS관련 단체와 정책·정보·기술교류 및 협력 등이다.

조직

AMEPS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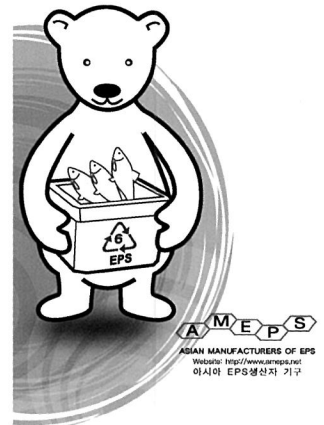
회장은 창설 이래 일본의 JEPSA에서 맡아왔으나 2010년부터 생산 및 소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국의 KFRA, 중국의 CPPIA-EPS, 일본의 JEPSA가 윤번제로 맡고 있다. 한국은 2010 ~ 2011년 당시 협회장이던 오장수 회장이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현재 회장은 중국의 Ruozhong Hua 회장이다. 또한 기구의 실무와 관련 KFRA의 신효식 실장이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총회는 사안 및 상황에 따라 기동대응팀(Task Force Team)을 구성 대처하고 있다. 현재 EPS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위한 홍보팀(Public Relation Team)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홍보팀은 한국, 태국, 필리핀,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

AMEPS는 매년 총회와 이사회를 회원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홍보팀은 필요한 때에 회의를 갖는다.

총회 개최 시 2년에 한 번씩 ‘아시아EPS재활용회의’가 함께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회원지역들의 EPS관련 현황, EPS 관련 최신 정보, 환경 또는 기술세미나 등이 이루어진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의 EPS재활용 기구들도 참석하여 정보를 교류하며 EPS 관련 기계업체들도 자신들의 최신 기술 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panded Polystyrene





2. KFRA의 국제협력 활동

그간의 활동 및 성과

협회는 AMEPS 창설 주역의 한 축으로 AMEPS 뿐 아니라 국제EPS연맹(INEPSA), 유럽EPS생산자기구(EUMEPS), 미국EPS산업협회(EP-IA) 등의 국제기구와의 유대 및 협력을 통한 EPS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전달, 시장 확대, 규제 정책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EPS포장상자가 농산물 신선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식품개발원 박형우 박사), ‘버섯의 수출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스티로폼 포장용기의 개발’(건국대학교 박세원 교수), ‘한국의 EPS 재활용 현황과 환경규제 평가’(연세대 김재능 교수) 등 서울 회의에서 발표된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는 국내 참석자들 뿐 아니라 해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협회는 국내에서 스티로폼에 대한 잘못된 공격에 정당한 사실로 대응하여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얻었다.

또한 국내의 ‘컵라면 용기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발생 의혹’ 문제 제기에도 국제기구들과의 신속한 정보 교류,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키기도 하였다.

향후 교류 활동 방향

수년간의 국제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저하로 국내의 EPS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PS재활용 홍보 및 기구 결성 유도과 회원 확대를 통한 국제 연대 강화를 통한 EPS 사용의 확대가 지금까지 AMEPS의 주요 사업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주요 사업 목표는 EPS에 대한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특히 타소재업계, NGO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EPS업계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외부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영역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 동종업계의

정보 네트워크 및 협조는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의 EPS업계는 규제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많은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률 개정 등으로 협회의 위상이 변화의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기구들과의 보다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조는 업계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시장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주저하거나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AMEPS 회원

- EP-IA ④ International EPS Alliance
- PNZ ④ EPS Industry Alliance(USA)
- JEPSA ④ European Manufacturers of EPS
- CPPIA-EP-IA ④ Plastics Foodservice Packaging Group(USA)
- TPFIRA ④ EPS Australia(Australia)
- EP-IA ④ EPS Australia(Australia)
- EP-IA ④ Plastics New Zealand(New Zealand)
- EP-IA ④ Japanese EPS Association(Japan)
- EP-IA ④ China Plastic Products Industry Association-EP-IA Division(China)
- EP-IA ④ Thai Plastic Foam Industries Recycling Association(Thailand)
- EP-IA ④ EPS Recycling Association India(India)
- EP-IA ④ Indonesian EPS Association(Indonesia)
- EP-IA ④ Malaysia EPS Recycling Council(Malaysia)
- EP-IA ④ Korea Foamstyrene Recycling Association(Korea)
- EP-IA ④ Chinese Hong Kong EPS Recycling Association(Hong Kong)
- EP-IA ④ Chinese Taiwan EPS Recycling Association(Taiwan)
- EP-IA ④ Polystyrene Packaging Council of Philippines(Philippines)

관련 국제기구

- INEPSA ④ International EPS Alliance
- EP-IA ④ EPS Industry Alliance(USA)
- EUMEPS ④ European Manufacturers of EPS
- PFPG ④ Plastics Foodservice Packaging Group(USA)